

금호석유화학, 매출 1조2500억원 목표

석유화학 호황 및 화학제품 단가 상승 ... 고부가가치 신사업 집중육성

금호석유화학이 2004년 매출액 1조2474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3월3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2004년 매출액 1조2474억원, 영업이익 998억원, 경상이익 419억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3년 매출 1조1989억원, 영업이익 782억원보다 각각 4.0%와 21.6% 개선된 실적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시장의 호황과 석유화학제품 단가인상으로 2004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에는 매출액 1조2844억원, 영업이익 1095억원, 경상이익 593억원을, 2006년에는 매출액 1조3852억원, 영업이익 1246억원, 경상이익 747억원을 전망했다.

금호산업은 2004년 재무구조 개선과 건설부문 수주물량의 매출 발생으로 매출액 1조2949억원, 영업이익 1557억원, 경상이익 785억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문에서 매출액 1조549억원, 영업이익 1223억원을, 고속 사업부문에서 매출액 2400억원, 영업이익 33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물류 사업을 그룹의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고, 국내외 골프장 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등 레저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또 금호타이어를 2008년까지 세계 8대 타이어 메이커로 도약시키고 금호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미래 신수종 사업에 적극 진출해 그룹의 성장 캐시카우로 활용키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3년 매출액 7조169억원, 영업이익 3452억원, 경상이익 1427억원, 당기순이익 491억원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매출액 7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 경상이익 7000억원, 당기순이익 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매출액 10조5419억원, 경상이익 1조3368억원, 부채비율 92%를 달성할 계획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04>